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외모거부민감성, 및 신체변형걱정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자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걱정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선행연구 결과와 개념적 의미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만 18-29세의 한국 남녀 40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들 중 신체변형걱정만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외모거부민감성과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은 각각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신체변형걱정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또한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과 성형수술수용의 관계에서는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의 이중매개효과도 유의미하였다. 한편, 대안모형을 세 가지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비교하였으며, 외모거부민감성에서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삭제된 대안모형 1이 연구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는 남녀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신체변형걱정을 비롯한 다른 연구 변인들에 초점을 맞춘 심리치료적 개입이 성형수술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걱정, 성형수술수용

[†] 이 논문은 제 1저자(2013)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일부내용은 2012년 12월 제 45차 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5-772-1264, E-mail: rmk92@chol.com

Lavinia Gomez(1997/ 2012)는 그의 저서 ‘대상 관계이론의 입문’에서 대상관계 이론가인 페어베인(W. R. Fairbairn)이 인간 삶의 목적은 ‘본능의 충족’이라기보다 ‘관계맺음’이라고 정의하였다고 밝히며,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이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대인관계 형성과정에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외모 혹은 신체적 매력을 가꾸는 인간 여러 행동들은 사회적 욕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Nolen-Hoeksema, Fredrickson, Loftus, & Wagenaar, 2009). Myers(2008/2009)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행해지는 성형수술은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동기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및 경험도 매우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증거로는 성형수술 건수의 양적 증가와 성형수술기술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의 1994년과 2015년의 결과치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성형수술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성형수술을 경험한 비율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정도는 1994년과 2015년, 각각 56% 대 64%, 남성의 취직을 위한 성형수술 고려정도는 48% 대 65%, 여성의 결혼을 위한 성형수술 고려정도는 38% 대 65%,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정도는 14% 대 18%, 성형수술 경험은 2% 대 7% 등으로 증가하였다.

ISAPS(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세계 미용성형 수술집도

건수는 2,390만 건으로 2015년도의 2,170만 건에 비해 10.1%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성형수술은 2015년도에는 세계 미용성형 수술량의 4.6%를 차지하며 미국(14.7%), 브라질(12.7%)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한국내 성형외과 의사의 수는 2010년 1,250명에서 2014년 2,056명으로 61%가량 증가하였다. 성형수술 건수에 대한 남녀의 비율을 따져보면, 2015년도에 수술한 사람들 중 여성비율은 85.6%, 남성비율은 14.4%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그렇지만 남성의 경우도 2014년도의 13.7%에 비해 0.7%가량이 증가한 바, 성형수술에 대한 남성의 관심과 경험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형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 성형수술의 의도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매체와 주변 압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 성형의도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종희, 김상우, 2002, 전현진, 정명선, 2010;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손은정(2007)과 Swami(2009)는 신체적 만족과 신체상 왜곡 등이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강(2014)은 외모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 문제의 본질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 심리상태이므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심리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von Soest, Kvaalem와 Wichstrom (201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12-19세의 노르웨이 청소년 1,597명을 13년 동안에 1992, 1994,

1999, 2005년, 네 차례에 걸쳐 외모만족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을 추적연구하였다. 연구기간 동안에 가슴 성형을 포함해 78명의 여성(약 4.9%)이 평균 24.6세에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성형수술 전후로 이들의 외모만족도는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우울, 불안, 식이 문제, 음주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강, 2014에서 재인용). 이 두 연구 결과를 볼 때,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 단순히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성형수술 전후에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치료적 개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임상장면에 치료적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형수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형수술이 사회적 관계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와 외모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심리적 변인들을 찾아보았다. 곧 정서적 측면에서는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기질 성격적 측면에서는 외모거부민감성, 신체적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 증상에 집중되는 신체변형걱정이다. 이 세 변인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신체적 외모로 인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애매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인지적 편향, 사회적 회피, 사회적 불안 등의 특징들은 공유하지만 반면, 불안의 초점은 차이가 있다(송지연, 박기환, 2009; Amir, Foa, & Coles, 1998; Buhlman, McNally, Tuschen-Caffier, & Jenike, 2002; Fang & Hofmann, 2010).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은 지각된 외모결함으로 인해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자아중심적 불안이며, 가해

염려형 사회공포증은 자신의 외모와 행동으로 타인을 가해하거나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타인 중심적 불안이라 할 수 있다(Choy, Schneier, Heimberg, & Liebowitz, 2008).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수용과 위 세 변인들이 어떤 관계구조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고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성형수술수용은 개인의 성형수술에 대한 적합성이나 만족도가 아니라,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형수술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Herderson-King & Herderso-King,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형수술수용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거나, 혹은 대인관계 상에서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각하거나, 혹은 잠재적 거부나 대인관계 상실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에 긍정적으로 고려된다는 주장이 있다(Brown, Furnham, Glanville, & Swami, 2007; Davids & Vernon, 2002; Park, Diraddo, & Calogero, 2009).

신체변형걱정(Body dysmorphic concerns)은 신체변형장애에서 흔한 증상으로, 지각된 외모결함에 대한 심한 걱정과 집착, 지나친 확인이나 결함위장, 사회적 회피 등의 특징을 포함한다(Littleton, Axsom, & Pury, 2005). 신체변형걱정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혹은 부모나 매체의 압력 등이 성형수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며 성형수술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역할을 한다(김명희, 2009; 문정신, 2003; 손은정, 2007; Park, Calogero, Young, & DiRaddo, 2010). 또한 신체변형걱정 증상을 가진 신체변형장애는 성형치료집단에서 나타나는 장애들 중 가장 우세한 장애 중 하나이다. 신체변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외모결함을 지각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하는 성형수술(do-it-yourself)을 하거나 혹은 성형수술을 실제로 받는다는 것이다(Crerand, Franklin, & Sarwer, 2006). 그렇지만 Crerand 등(2006)은 신체 변형장애를 가진 성형치료집단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성형수술은 장기적 유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신병리적 및 심리치료적 개입인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성형수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변형걱정이라는 심리적 요소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의 개념적 정의를 본 따 만든 외모거부민감성(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은 거부의 개념을 ‘신체적 매력에 근거한 거부’에 초점을 맞춘 것 외에는 거부민감성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Park, 2007). 이 두 개념의 핵심은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즉시 거부를 지각하고 관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과도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Downey & Feldman, 1996). 그런데 외모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외모결함에 과민하여 외모로 인해 있을 잠재된 거부감과 대인관계 상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Park, Calogero, Harwin, & DiRaddo, 2009). 그들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부의 원인을 지각된 신체적 결함에 귀인하므로 신체변형걱정이 더 많이 나타나며, 사회적 및 개인적 이유로 성형수술수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Calogero, Park, Rahemtulla, & Williams, 2010; Park, Calogero, Young, & Diraddo, 2010). Park 등(2010)은 외모거부민감성의 개인차에 따라 신체 변형걱정이나 성형수술수용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외모거부민감성은 성형수술수용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뿐 만 아니라 무분별한 성형수술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위한 선별신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alogero et al., 2010; Park, et al., 2010). Park 등(2010)과 Calogero 등(2010)은 각각 미국 대학생과 영국 대학생 표본에서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 성형수술수용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이 얻은 연구결과가 한국 대학생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Taijin Kyofusho, 대인공포증)은 다인진 교후쇼란 이름으로 DSM-5에서 사회불안장애의 문화와 관련된 진단적 쟁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은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만족시키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때때로 망상적 수준까지 공포를 느끼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즉 지각된 신체적 결함(얼굴 붉힘, 떨림, 경직된 얼굴표정, 혹은 해로운 체취나 가스방출 등)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너무 직접적인 눈맞춤이나 신체부위 응시 등)으로 타인을 당황케 하거나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병적인 공포를 말한다(Choy et al., 2008).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 특후 증후군으로 주로 언급되지만, 문화와 상관없이 사회불안이 더욱 심각할 경우이나 혹은 위계적인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사회행동으로서 자의식 유지가 매우 강조되는 문화들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증후군이 있다고 보고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시형(1994)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 장애의 유병률은 병원장면의 경우 사회불안장애 환자 중 32.3%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1999)은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데, 이는 발달과정의 미성숙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왜곡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성형수술 수용태도와와의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이 여러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송지연과 박기환(2009)은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참조기준을 타인이나 사회에 두는 양육방식, 혹은 체면을 중시하거나 눈치를 보는 행동 등과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런 특징은 성형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곧 대중매체와 주변압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등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붉어진 얼굴을 화장으로 위장하는 등, 신체적 결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Chapman, Mannuzza, & Fyer, 1995; Rapee, 1995;

Kleinknecht et al., 1997에서 재인용). 김준희와 정명선(2016)은 사회적 외모불안(social appearance anxiety), 곧 체형을 비롯한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관한 불안이 미용성형 수술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로 유추해 볼 때,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은 성형수술수용태도와 어떤 방식으로든 유의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신체변형걱정과 성형수술수용, 외모거부민감성과 성형수술수용,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덧붙여, Fang 등(2011)은 사회불안, 신체변형걱정, 거부민감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신체변형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과 외모거부민감성도 신체변형걱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높을수록 거부가 기대되는 촉발상황에서 잠재되었던 외모거부민감성이 더욱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외모거부민감성은 신체변형걱정을 악화시켜 성형수술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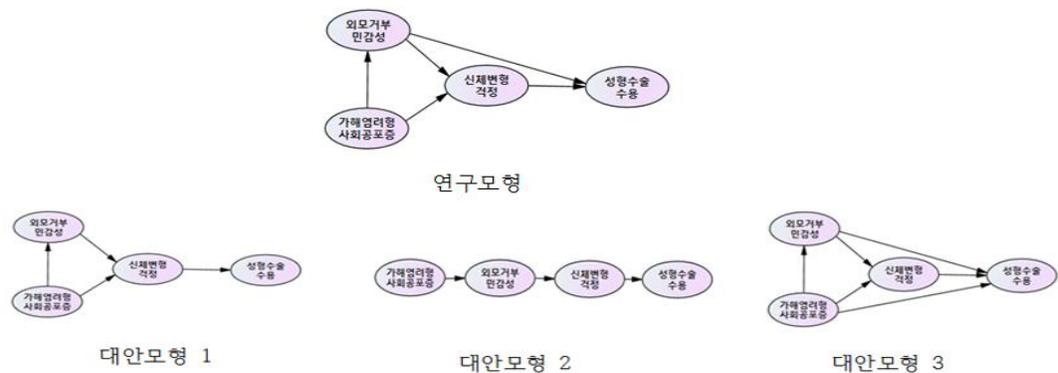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는 가정을 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및 각 변인들의 개념적 특징들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후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에 하나 이상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성형수술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한, 성형수술빈도에서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는 바,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로 구성된 본 연구모형에 대해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참여자

설문조사는 2012년 9월~10월에 걸쳐 약 한 달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만 18-29세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자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임의적으로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514명의 설문자료 중, 결측치와 이상치를 점검하고 정상성 검증을 하여 최종 4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남 169명, 여 23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15세(SD=2.72), 학력은 대학생 321명(79.5%), 대학졸업 49명(12.1%), 대학원이상 28명(6.9%), 고졸이하 6명(1.5%)이었다. 성형수술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1%인 33명이었으며, 성형부위는 눈 27명, 코 2명, 양악 1명, 피부 1명, 무

응답 2명이었다. 자기보고 체중은 표준 274명(67.7%), 과체중 68명(16.8%), 저체중 41명(10.1%), 비만 17명(4.2%), 고도비만 5명(1.2%)이었다.

측정도구

성형수술수용 척도. 성형수술수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erderson-King과 Herderson-King(2005)이 개발한 ACSS(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척도에 대한 번안은 저자가 1차 번역을 한 후, 어학연수를 다녀온 동대학원 석사생의 교정을 받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석사 동료들과 지도교수의 수정 및 감수를 받았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성형수술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5개 문항에 7점 평정척도이다. 하위요인은 개인적 이유(intraperson, 5문항, 예: 성형수술은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좀 더 나은 기분을 갖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유(social, 5문항, 예: 만약 파트너가 나를 좀 더 매력적으로 여길 것이라 생각이 들면, 나는 성형수술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수술고려정도(Consider, 5문항, 예: 나는 때때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로 구성되어 있다. Herderson-King & Herderson-King (2005)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계수(α)는 .94이며, 하위요인들은 .71~.90이었다.

신체상 걱정 검사. 신체변형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Littleton 등(2005)이 개발한 BICI

(Body Image Concer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19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BBDQ(Littleton, Axsom & Cynthia, 2001)의 20문항 중, 낮은 내용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12번 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정신(2002)이 번안한 간편 신체왜곡질문지(BBDQ)에서 12번 문항이 제외된 형태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체점수는 19점에서 95점이고, 임상적 신체변형격정을 위한 절단점(cutoff)은 72점이다. 하위요인은 외모관련 불안족/수치심과 지각된 결점에 대한 확인/위장(12개 항목)과 사회적 장해를 포함하는 외모관심으로 인한 기능장해(7개 항목)로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ttleton 등(2005)의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일관성계수(α)는 .93이었고, 각 하위요인들은 각각 .92,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계수(α)는 .90이고, 하위요인들은 각각 .87, .83이었다.

외모거부민감성 척도. 외모에 근거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2007)이 개발한 Appearance-RS(Appearance - based Rejection Sensitivity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에 대한 번안은 저자가 1차 번역을 한 후, 어학연수를 다녀온 동대학원 석사생의 교정을 받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석사 동료들과 지도교수의 수정 및 감수를 받았다. 외모거부민감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거부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15가지 상황(예: 첫 데이트를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얼굴에서 흠 하나를 발견한다)이 제시되고, 그 상황에 대해 불안스런 걱정(예: 당신의 외모 때문에 데이

트 상대가 당신에게 덜 끌릴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한가?)과 거부기대(예: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나를 덜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를 평가한다. 6점 척도이며, 개인의 외모거부민감성 점수는 먼저 각 상황에 대한 거부 불안과 기대라는 두 차원의 점수를 곱하고 (기대문항이 거부기대문항으로 되어있으므로 Downey와 Feldman(1996)의 거부민감성과는 다르게 역채점은 없다), 그 후 15가지 상황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15로 나눈 값, 곧 평균값으로 정한다. 점수가 높으면 외모거부민감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Park(2007)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계수(α)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계수(α)는 .93이었다.

한국판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척도. 가해 염려형 사회공포증을 측정하기 위해 Kleiknecht 등(1997)이 개발한 TKS(Taijin Kyofusho Scale)를 조용래와 김은정(2005)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31개 문항(예: 내 외모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렵다)에 7점 척도이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용래와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α)는 .95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계수(α)는 .95이었다.

자료 분석

차후 구조방정식모형(SEM)분석을 위해 원자료를 필요한 형태로 요약하고 변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원자료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처치하였다. 자료의 이상치에 대해서는 원자료의 원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으로부터 삼표

준편차(3SD)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이상치로 규정하고 해당사례를 제거하였다. 결측치는 완전사례선정법으로 처리하였다. 다변량 정상성에 대한 검증은 개별변인, 곧 각 척도 문항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 단변량 정상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였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행렬을 통해 변수 간 관계성 정도를 파악하였고, 그림 3에서 잠재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 점검을 통해 얻은 최종 405명의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하여 모형 검증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수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인으로서 신체변형걱정과 성형수술수용은 각 하위요인의 합을,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과 외모거부민감성은 문항묶음(item parcelling)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걱정, 그리고 성형수술수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면,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

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1에서 측정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도 확인하였다. 가해염려형 사회 공포증과 성형수술수용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이유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어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각 잠재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고 각 개념의 지표들이 단일요인 모형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단일 차원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CFI, TLI, SRMR 및 RMSEA 등의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은 CFI, TLI, GFI는 모두 .90보다 클 때, SRMR는 .08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적합도가 완벽할수록 0에 가까워지며, RESEA는 좋은 적합도는 .05보다 적을 때, 팬츠은 적합도는 .08보다 적을 때,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M(SD)
1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				74.28(27.19)
2 외모거부민감성	.44**	-			8.90(5.24)
3 신체변형걱정	.32**	.53**	-		47.31(10.63)
4 성형수술수용	.17**	.29**	.38**	-	57.23(19.86)

N = 4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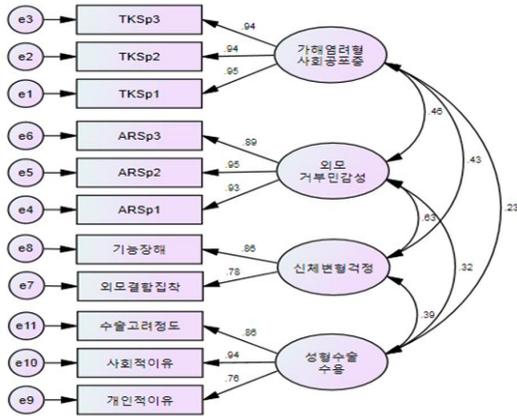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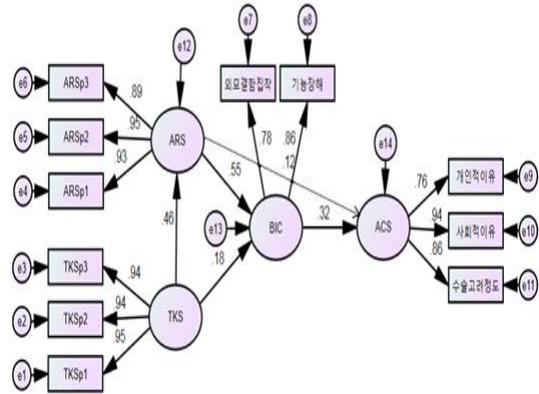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보통 적합도는 .10보다 적을 때이다(배병렬, 2011).

본 연구의 적합도는 $\chi^2(38, p=.000) = 126.531$, GFI = .945, TLI = .967, CFI = .977, SRMR = .045, RMSEA = .076(90% 신뢰구간 .062~.091)이어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다. 그림 2를 보면,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모수 추정치는 .76~.95 표준화 계수를 보이며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구조모형에 투입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 검증 : 직접효과

구조모형검증 결과, 본 연구의 제안모형의 적합도는 $\chi^2(39, p=.000) = 127.125$, GFI = .945, TLI = .968, CFI = .977, SRMR = .044, RMSEA(90% 신뢰구간) = .075(.061~.089)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므로, 각 변인들의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였다.

외모거부민감성이 신체변형걱정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beta = .55, p < .01$.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2, p > .05$. 신체변형걱정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beta = .32, p < .01$. 이 결과는 Park 등(2010)과 Calogero 등(2010)이 미국과 영국 대학생 표본 연구에서 보였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두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외모거부민감성은 신체변형걱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변형걱정은 성형수술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불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는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2, p < .01$.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신체변형걱정과 외모거부민감성에 이르는 경로는 각각 유의하였다, $\beta = .18, p < .01, \beta = .46, p < .01$.

구조모형 검증 : 매개효과

본 연구는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변형걱정의 매개효과,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과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신체변형걱정의 매개효과 및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의 이중경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간접경로의 매개효

과를 얻는 방법으로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백분율 부트스트랩(the percentile bootstrap)방법을 사용하였다. 원자료($N = 405$)에서 무선표집으로 1000번이 계산되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효과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β	S. E.	C. R.	<i>p</i>
TKS → ARS	1.33	.46	.14	9.61	.00**
TKS → BIC	.08	.18	.02	3.40	.00**
ARS → ACS	.03	.12	.02	1.75	.08
ARS → BIC	.08	.55	.01	9.87	.00**
BIC → ACS	.58	.32	.14	4.16	.00**

외모거부민감성(ARS) R^2 : .21

신체변형걱정(BIC) R^2 : .42

성형수술수용(ACS) R^2 : .16

주. TKS=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ARS=외모거부민감성, BIC=신체변형걱정, ACS=성형수술수용, ** $p < .01$.

표 3. 성형수술수용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TKS → ARS	.46**	-	.46**
TKS → BIC	.18**	.25** (.20~.32)	.43**
TKS → ACS	-	.19** (.14~.26)	.19**
TKS → BIC → ACS	-	.18** ^a	-
TKS → ARS → BIC → ACS	-	.05** ^b	-
ARS → ACS	.12	.18** (.09~.29)	.30**
ARS → BIC	.55**	-	.55**
BIC → ACS	.32**	-	.32**

주. TKS=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ARS=외모거부민감성, BIC=신체변형걱정, ACS=성형수술수용

^a, ^b는 비표준화계수

** $p < .01$.

에서 신체변형걱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18, p < .01$.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신체변형걱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25, p < .01$.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 = .19, p < .01$. 그런데 이 간접효과는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 각각을 매개로 하는 매개효과와,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의 두 변인을 매개로 하는 이중경로 매개효과가 합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신체변형걱정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beta = .18, p < .01$.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의 이중경로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 = .05, p < .01$.

대안모형 비교

본 연구모형은 이론적 토대 위에 설정한 가설이므로 연구모형이 반드시 최선일 수 없다. 그림 1에서 연구모형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비교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은 서로 내포된 관

(nested relation)에 있으므로, 모형들 간에 χ^2 차이가 검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모형의 우수성은 일반적으로 χ^2 값이 작을수록, 자유도(df)가 클수록 더 우수한 모형이며, 모형 간 비교를 할 경우에는 χ^2 값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비해 대안모형 1과 대안모형 3은 자유도 차이가 1이기 때문에 χ^2 값의 차이는 3.84 ($p=0.05$) 이상이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2는 자유도 차이가 2이기 때문에 χ^2 의 차이가 5.99 ($p=0.05$) 이상이 판단기준이 된다.

우선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을 비교하면,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1보다 자유도 1이 감소하였으나, χ^2 의 값은 2.81만 감소하여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키지 못하였다. 곧 자유도가 큰 대안모형 1이 연구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2를 비교하면,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2보다 자유도 2가 감소하였으나, χ^2 의 값이 12.79만큼 감소하여 자유도 감소를 상쇄하는 유의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2보다 더 우수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3을 비교하면, 대안모형 3은 연구모형보다 자유도 1이 감소하였으나, χ^2 의 값이 .99밖에 감소하지 않아 연구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적합도	χ^2	df	p	GFI	TLI	CFI	SRMR	RASEA
연구모형	127.125	39	.00**	.945	.968	.977	.044	.075
대안모형1	129.930	40	.00**	.945	.968	.977	.046	.075
대안모형2	139.914	41	.00**	.942	.966	.975	.056	.077
대안모형3	126.135	38	.00**	.45	.967	.977	.045	.076

본 연구의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는 대안모형 1이 연구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 수용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이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보다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다중집단분석을 실행하였다. 구조회귀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결합된 혼합모형 이므로 집단 간의 동질성은 집단 간 구조회귀모형로 집단 간의 동질성은 집단 간 구조

회귀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 집단 간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의 동일성 검증, 집단 간 구조계수의 동일성 검증, 집단 간 잠재변인 간 분산/공분산 동일성 검증, 집단 간 잠재변인의 잔차 분산의 동일성 검증, 집단 간 측정변인의 오차분산의 동일성 검증 등, 6개 수준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며, 이 수준들은 전 단계에 내재되는 위계적 모형들로 순차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

Amos를 이용한 다중집단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의 위계적 모형들을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었고, 표 5는 남녀 집단 간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는 각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와 χ^2 차이를 통한 집단 간 동일성 검증 결과들이다.

결과에 따르면, 형태동일성 모형이 양호한 적합

표 5. 남녀 집단 간 동일성 검증 (집단 간 비교분석)

모형	χ^2	df	p	TLI	RMSEA	$\Delta\chi^2$	Δdf	p
형태동일성모형	149.082	78	.000	.974	.048			
측정 계수 모형	169.041	85	.000	.972	.050	19.959	7	.006
구조 계수 모형	174.693	90	.000	.973	.048	5.652	5	.342
구조공분산모형	175.308	91	.000	.974	.048	.615	1	.433
구조 잔차 모형	184.787	94	.000	.973	.049	9.479	3	.024
측정 잔차 모형	196.460	105	.000	.975	.046	11.673	11	.389

표 6. 남녀 집단별 비표준화 구조 계수

경로	남 (N=169)				여 (N=236)			
	B	S. E.	C. R	p	B	S. E.	C. R	p
TKS → ARS	1.11	.19	5.93	.00**	1.52	.20	7.68	.00**
TKS → BIC	.16	.05	3.15	.00**	.11	.05	2.17	.03*
ARS → ACS	.00	.02	.02	.98	.04	.02	2.25	.03*
ARS → BIC	.11	.02	4.80	.00**	.14	.02	7.91	.00**
BIC → ACS	.32	.11	2.95	.00**	.21	.08	2.67	.00**

주. TKS=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ARS=외모거부민감성, BIC=신체변형걱정, ACS=성형수술수용, * p < .05, ** p < .01.

도를 보이면서 남녀 집단 간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 동일한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계수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고, 이를 비제약 모형과 비교하였다. 측정계수모형이 비제약 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과의 χ^2 차이 검증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Delta\chi^2(7, N = 405) = 19.959, p = .006$. 하지만, χ^2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와 RMSEA의 변화도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들의 변화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왔다, $\Delta TLI = .002, \Delta RMSEA = -.002$. 그러므로 측정계수 모형은 남녀 집단 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남녀 집단 간에 구조모형의 형태와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계수 역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남녀 집단 간에 구조계수를 같은 값으로 제약한 구조계수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Delta\chi^2(5, N = 405) = 5.652, p = .342$. 그러므로 집단 간 구조계수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형태, 측정계수, 구조계수는 남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집단 구조모형의 잠재변인들의 분산 및 공분산, 구조모형의 내생잠재변인들의 잔차분산, 측정모형의 측정변인들의 잔차분산도 집단 간 동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은 남녀집단 간에 동질하여 성차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표 6에서, 전체집단과 남자집단에서와는 다르게 여자집단에서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B = .24, C.R = 2.25, P < .05$. 이 결과는 언뜻 보기에는 남녀 집단 간 변인들의 구조관계 차이를 보이는 듯하지만, 그 경로계수에 있어서 남녀 집단 간 차이는 구조계수모형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곧 여자집단에서 외모거부민감성과 성형수술수용이 더 깊은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남녀를 구별하는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지각된 외모결함과 사회적 욕구가 밀접하게 관련있는 심리학적 변인들,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taijin kyofuso), 외모거부민감성, 신체 변형격정과 성형수술수용 간의 관계를 개념적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경쟁적인 관계가 되는 세 가지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남녀집단에 대한 연구모형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이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치료적 함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 결과는 Park 등(2010)의 미국 대학생 표본 연구 결과와 Calogero 등(2010)의 영국

대학생 표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국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모거부민감성의 신체변형걱정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Calogero et al., 2010; Park et al., 2010). 외모 때문에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체변형걱정 증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또한 신체변형걱정의 성형수술 수용에 대한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손은정, 2007; Callaghan et al., 2010; Calogero et al., 2010; Crerand et al., 2005; Crerand et al., 2006; Park et al., 2010; Sarwer & Crerand, 2008). 즉, 신체변형걱정이 심한 사람일수록 신체적 외모를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선행연구와 불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는 외모거부민감성의 성형수술수용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신체변형걱정이 이 두 변인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외모거부민감성이 강한 사람이 성형수술수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체변형걱정 증상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의 외모거부민감성과 신체변형걱정에 대한 직접효과는 각각 유의하였으며, 또한 외모거부민감성은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과 신체변형걱정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이 결과는 Fang 등(2011)의 사회불안과 신체변형걱정과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이 심할수록 외모로 인해 외모거부민감성은 더욱 활성화되며 신체변형걱정은 더욱 악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체변형걱정의 단일매개효과와 외모거부민감성 및 신체변형걱정의 이중경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만약 성형수술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신체변형걱정 수준이 심각하거나 외모거부민감성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념적 정의를 근거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나, 더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모형을 제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외모거부민감성에서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며 이 경로가 삭제된 대안모형 1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을 가지고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남녀 집단 간에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형태, 측정계수, 구조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각 집단 구조모형의 잠재변인들의 분산 및 공분산, 구조모형의 내생잠재변인들의 잔차분산, 측정모형의 측정변인들의 잔차분산도 집단 간 동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상관없이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걱정이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경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은 통계적으로는 남녀 집단의 외모거부민감성에서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경로계수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지만, 단지 여성 집단만을 고려해볼 때는 외모거부민감성이 성형수술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Swami, Chamorro-Premuzic,

Bridges와 Furnham(2009)의 여성이 남성보다 성형수술을 고려할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면이 있다.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변인들의 단일변인 차원에서의 남녀 비교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형수술의 질적, 양적 증가로 인해 여러 학회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 의도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성형수술을 수용하는 태도에 미치는 심리학적, 특히 병리적인 변인들을 규정하고 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형수술이 단순히 외모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와 관련하여 외모에 초점이 맞춰진 다양한 병리적 심리특성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형수술수용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 신체변형걱정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변인이며, 외모거부민감성 또한 표본에 따라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또, 이는 임상적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체변형걱정이 없거나 외모거부민감성이 없을 수 있지만,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로 인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성향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심한 걱정과 집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신체변형걱정을 가진 사람들은 성형수술 후에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Crerand et al. 2006). 그러므로 성형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 전이나 후에도 병리적 심리특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병원이나 상담 장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학적 개입들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본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인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인 성형외과적 장면에 심리치료적 개입을 시도해 볼 근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성형외과적 측면에서 보면 병리적 심리특성인 신체변형걱정이나 외모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은 수술의 부작용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개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외모거부민감성과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을 성형수술수용과 연합하여 연구한 한국의 최초 논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걱정 과 성형수술수용의 관계는 한국적 표본을 사용하여 선행연구를 본 딴 개념모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과 성형수술수용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개념적 정의의 유사점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성형수술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른 기질 성격적 특성이나 신체적 특성과 연결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추후 이 두 변인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자극제 내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는 병리적 심리특성들과 성형수술수용의 구조관계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곧 연구모형보다는 대안모형 1이 더 우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형수술수용에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관한 추가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본 연구 결과는 성형수술수용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들이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보여 주었다. 비록 성형수술의 양이나 부위들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단일 심리변인에 있어서는 성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남녀 공히 성형수술수용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이 연합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신체변형격정에 앞서는 경로설정이다. 본 연구자는 Fang 등(2011)의 연구결과, DSM-IV에서 언급된 사회공포증이 일반적으로 강박장애와 신체화장애에 선행한다는 것,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살핀 결과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신체변형격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근거하여 이 두 변인의 경로를 설정하고 유의성을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Fang과 Hofman(2010)은 신체변형장애가 불안 연속체로 증상의 심각도 차원에서 사회공포증의 극단에 속할 수 있으며,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은 관계사고와 지각된 외모결함에 대한 집착, 사회적 회피로 진행되는 증상으로 인해 신체변형장애와 동일한 개념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신체변형장애와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의 감별진단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Park(2007)은 외모거부민감성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기질적-성격 처리체계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변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요소인 가해염려형 사회

공포증이 기질적-성격적 성향보다 선행하는 변인으로 경로를 설정한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과 다르게 외모거부민감성이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에 선행하거나 혹은 이 두 변인이 상호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선행연구가 적은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나 외모거부민감성 변인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임상적 관련성 등을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은 90%정도가 성형경험이 없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성형집단에 일반화하기가 조심스럽다. 다만 본 연구자는 성형수술과 심리학적 변인의 관계를 연구를 시도한 정도로 만족하며, 추후 본 연구결과를 가지고 성형경험이 있는 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실제 성형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모거부민감성, 신체변형격정,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의 수준에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성형수술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효과 확인 및 지지를 얻는데 꽤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는 몇 심리적 변인들과 성형수술수용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성형수술수용에는 사회문화적 변인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심리적 변인들이 어떻게 연합되어 성형수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연구해 볼 만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변인들과 성형수술수용 간의 관계형태와 정도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표본이 외모에 더욱 관심이 많은 이십대 남녀들이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오늘날 성형수술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를 표본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명희 (2009). 부정적 정서와 외부압력 및 자기의식이 여대생의 신체변형장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정신 (2003).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상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희, 김상욱 (2002).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9-314.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송지연, 박기환 (2009).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 : 체면, 눈치, 문화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329-343.
-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대인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38(1), 64-76.
- 이시형, 정광설 (1984). 사회공포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1). 신경정신의학, 23(1), 111-118.
- 전형진, 정명선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3), 734-741.
- 조용래, 김은정 (2005).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 한국판 TK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97-411.
- 최강 (2014. 3. 23). 성형수술 전과 후: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형수술과 신체변형장에. 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155736>에서 2018. 9. 4 자료 얻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4. 15).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조사-1994/2004/2015년 비교, <https://panel.gallup.co.kr>에서 2018. 9. 4 자료 얻음.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7(4), 17-2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ed). Washington, DC: Author.
- Amir, N. Foa, E. B., & Coles, M. E. (1998).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10), 945-957.
- Brown, Furnham, A., Glanville, L., & Swami, V. (2007). Factors that affect the likelihood of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esthetic Surgery Journal*, 27(5), 501-508.
- Buhlman, U., Wilhelm, S., McNally, R. J., Tuschen-Caffier, B., Baer, L., & Jenike, M. A. (2002). Interpretive biases for ambiguous information in body dysmorphic disorder. *CNS Spectrums*, 7(6), 435-433.
- Calogero, R. M., Park, L. E., Rahemtulla, Z. K., & William, K. C. D. (2010). Predicting excessive body image concerns among British university students: The unique role of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Body Image*, 7(1), 78-81.
- Choy, Y., Schneier, F. R., Heimberg, R. G., Oh, K. S., & Liebowitz, M. R. (2008). Features of the offensive subtype of Tanjin-Kyofu-Sho in US and Korea patients with DSM-IV social anxiety

-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3(3), 230-240.
- Crerand, C. E., Franklin, M. E., & Sarwer, D. B. (2006). Body dysmorphic disorder and cosmetic surgery.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118(7), 167-180.
- Crerand, C. E., Phillips, K. A., Menard, W., & Fay, C. (2005). Nonpsychiatric Medical Treatment of Body Dysmorphic Disorder. *Psychosomatics*, 46(6), 549-555.
- Davis, P. & Vernon, M. L. (2002). Sculpting the body beautiful: attachment style, neuroticism, and use of cosmetic surgeries. *Sex Roles*, 47(3/4), 129-138.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Fang, A., & Hofmann, S. G. (2010).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disorder and body dysmorphic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8), 1040-1048.
- Fang, A. Asnaania, Gutnera, C., Cooka, C., Wilhelm, S., Stefan, G., & Hofmann, S. G. (2011).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body dysmorphic concer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25(7), 946-949.
- Gomez, L. (2012). 대상관계이론 입문 [*An Introduction to Object Relations*] (김창대, 김진숙, 이진영, 유성경 공역). 서울: 박영사.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Herderson-King, D., & Herderson-King, E. (2005).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2), 137-149.
- ISAPS (2016. 6. 26). *Global Survey Released by ISAPS Reports Increase of Over One Million Cosmetic and Aesth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5* <https://www.isaps.org/>
- medical-professionals/isaps-global-statistics에서 2018. 9. 4 자료 얻음
- Kelly, M. M., Watters, G., & Phillips, K. A. (2010). Social Anxiety and Its Relationship to Functional Impairment in Body Dysmorphic Disorder. *Behavior Therapy*, 41(2), 143-153.
- Kleinknecht, R. A., Dinnel, D. L., Kleinknecht, E. E. (1997). Cultural Factors in Social anxiety: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and Taijin Kyofusho.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1(2), 157-177.
- Littleton, H. L., Axsom, D., & Pury, C. L. S. (2005). Development of the body image concern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2), 229-241.
- Myers, David G. (2009). 마이어스의 심리학 8판 [*Psychology*]. (신현정,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8에 출판).
- Onden-LiM, M. & Grisham, R.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dysmorphic concerns and the effects of image suppression: Implications for models of body dysmorphic disorder. *Journal of Obsessive and Related Disorders*, 1(3), 189-195.
- Park, L. E. (2007).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Implications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ffect, and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4), 490-504.
- Park, I. E., & Pelham, B. W. (2006). *Self versus others' ratings of physical attractiveness*. Unpublished data,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Park, L. E., & Pinkus, R. T. (2009). Interpersonal effects of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4), 602-612.
- Park, L. E., Diraddo, A., & Calogero, R. M. (2009). Sociocultural influence and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mong college students.

-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1), 108-119.
- Park, L. E., Calogero, R. M., Harwin, M. J., & DiRaddo, A. M., (2009). Predicting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teractive effects of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negative appearance comments. *Body Image*, 6(3), 186-193.
- Park, L. E., Calogero, R. M., Young, A. F., & DiRaddo, A. M., (2010). Appearance-based sensitivity predicts body dysmorphic disorder and cosmetic surgery accepta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5), 489-509.
- Sarwer, D. B., & Crerand, C. E. (2008). Body dysmorphic disorder and appearance enhancing medical treatments. *Body Image*, 5(1), 50-58.
- Susan Nolen-Hoeksema, Barbara L. Fredrickson, Geoff R. Loftus, & Willem A. Wagenaar (2009). *Atkinson & Hilgard's Introduction to psychology*. 15th Edition, 668-675. Hampshire: Wadsworth Cengage Learning.
- V. Swami (2009). Body appreciation, media influence, and weight status predict consideration of cosmetic surgery among female undergraduates. *Body Image*, 6(4), 315-317.
- V. Swami, T. Chamorro-Premuzic, S. Bridges, A. Furnham. (2009).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Body Image*, 6(1), 7-13.
- von Soest, Kvaalem, & Wichstrom (2012). Predictors of cosmetic surgery and its effects on psychological factors and mental health: a population-based follow-up study among Norwegian females. *Psychological Medicine*, 42(3), 617-626.

원고접수일: 2018년 10월 11일

논문심사일: 2018년 10월 23일

게재결정일: 2019년 2월 20일

Effects of Taijin Kyofusho,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Body Dysmorphic Concerns on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Un Ja Kim
Jinangu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ijin kyofusho,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body dysmorphic concerns on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Based on previous study results and conceptual meanings, the research model was set up and verified to be fit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05 Koreans, aged 18-29,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the results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only body dysmorphic concerns had a direc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The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taijin kyofusho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mediated by body dysmorphic concerns. Moreover, the dual mediation of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body dysmorphic concerns was significant between taijin kyofusho and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In the comparison of three alternative models and the study model, the alternative model 1 was deemed to be better than other alternative models and the study model. Finally, we verified that the research model could be applied to both male and female groups, through the use of multiple group analysis. The structural relations of the variables were confirmed to be similar in both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ongly suggest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cused on body dysmorphic concerns and other variables could be beneficial to improve the satisfaction in cosmetic surgery. Moreove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taijin kyofusho,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body dysmorphic concerns,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부록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1	2	3	4	5	6	7	8	9	10	11
1 TKSpl	-										
2 TKSpl2	.89**	-									
3 TKSpl3	.90**	.89**	-								
4 ARSp1	.43**	.45**	.37**	-							
5 ARSp2	.42**	.44**	.38**	.88**	-						
6 ARSp3	.38**	.40**	.33**	.83**	.85**	-					
7 외모결함집착	.25**	.25**	.21**	.45**	.46**	.46**	-				
8 기능장애	.40**	.40**	.38**	.52**	.50**	.50**	.67**	-			
9 개인적 이유	.03	.04	.03	.20**	.20**	.22**	.28**	.14**	-		
10 사회적 이유	.22**	.24**	.26**	.30**	.30**	.27**	.34**	.28**	.71**	-	
11 수술고려경도	.14**	.16**	.18**	.24**	.25**	.28**	.40**	.27**	.65**	.81**	-
M	27.73	24.09	22.46	47.96	44.47	40.97	37.89	15.38	21.50	17.46	18.27
SD	9.53	9.70	9.00	28.17	27.20	27.34	8.56	4.50	6.97	7.50	7.51
왜도	.53	.49	.65	.64	.72	.94	-.34	.37	-.47	-.05	.05
첨도	-.35	-.57	-.34	-.03	.32	.87	-.15	-.18	-.15	-.69	-.72